



종로 송현동 부지에 '책의 전당' 짓자 출판계, “광화문 일대 문화벨트 완성해야” 주장

출판계가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경복궁 옆,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에 '책의 전당'을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 한복판에 도서관·박물관·기록관이 융합된 '책의 전당'을 건립함으로써 광화문 일대 문화벨트를 완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책나라연대(대표 김민웅),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사장 도정일),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이사장 김언호), 한국출판인회의(회장 박은주),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윤희운), 한국기록협회(회장 한상완) 등은 지난 2월 1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현 대한항공 소유)에 '책의 전당' 건립을 제안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책, 출판, 도서관, 기록, 독서 관련 단체가 제안한 '책의 전당'이란, 책과 관련된 도서관·박물관·기록관이 융합된 것으로 ▲우리 지식사회의 중요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담아내 시민에게 봉사하는 도서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직지, 실록, 의궤 등 우리 책의 역사를 국내외의 시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 ▲세계적인 수준의 기록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록관 ▲책의 세계적인 교류가 이뤄지는 전당 ▲전 세계 지식인과 학자, 문화인, 예술가들이 방문하고 교류하면서 서로 새로운 자극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책 문화의 창조 현장이라고 소개했다.

송현동 부지, 호텔보다는 공공부지로 활용해야

이 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제안된 부지는 현재 한진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송현동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다. 한진그룹은 지난 2008년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 3만6642㎡(약 1만1000평) 규모의 부지를 삼성생명으로부터 약 2900억원에 매입한 뒤 지상 4층 지하 4층의 7성급 한옥형 고급호텔 등을 짓겠

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상대정화구역'인 이 부지에 호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과 관련해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열고 불허를 결정했고, 2010년 12월부터 한진그룹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 소송을 제기,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패소했으나, 2012년 8월 '모든 종류의 호텔을 학교보건위행 저해 시설로 규정하는 학교보건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해 놓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습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해성 없는 관광호텔이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부지 활용의 또 다른 키를 쥐고 있는 서울시는 "송현동 일대가 도심 문화유산과 가까운 북촌의 거점 공간이어서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라서 호텔 건립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언호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은 "해당 부지에 호텔 허가가 안 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가 문화공간으로 만들어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논의를 시작했다"라며 "국가가 해당 부지를 사들여 '책의 전당'을 건립하고 문화융성의 기회로 삼기를 제안한다. 또한 이 부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한진그룹에게도 대국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적 노블리츠 오블리제를 실천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